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7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겨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들꽃을 옮겨 심다
2. 법정 스님 편지
또 휴가철인 모양입니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당신의 가정은 어떤가? 1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천한 사람 1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대광왕의 배품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태풍 연가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 풀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7월 1일 발행, 통권 341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들꽃을 옮겨 심다

오늘 아침 뒤꼍에서 개망초를 꺾어다가 오지항아리에 꽂았더니 볼만하다. 아니, 볼만하다가 아니라 볼수록 아주 곱다. 개망초는 산자락이나 밭두둑 어디서나 마주치는 흔한 꽃이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꽃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스치고 지나면서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가까이서 두고 보니 아주 사랑스런 꽃이다. 꽃이 흰빛인 줄만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면 눈에 떨 듯 말 듯 연한 보랏빛을 머금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화병보다 오지항아리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걸 찰떡궁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서나 지천으로 피어 있기 때문에 개망초의 아름다움을 미처 몰랐는데 잘 어울리는 그릇을 만나자 꽃은 가려진 자신의 속뜻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다. 이 일이 오늘 하루 명상의 실마리가 되었다.

장마철에 가끔씩 날이 들면 장화를 신고 대지팡이를 끌며 숲길을 어슬렁거렸다. 7월의 들꽃 중에서는 나리가 가장 눈에 띈다. 그중에도 꽃잎이 가늘고 여린 ‘하늘말나리’가 발길을 멈추게 한다. 들꽃은 그 꽃이 저절로 자라는 그 장소에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꽃만 달랑 서 있다면 무슨 아름다움이겠는가. 덩굴 속에 섞여서 피어 있을 때 그 꽃이 지닌 아름다움과 품격이 막힘없이 드러난다.

이런 자연의 조화調和를 잘 알면서도 엇그제 나는 ‘하늘말나리’를 몇 그루 내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가까이 두고 싶어서였다. 부엌 들창문을 열면 요즘 원추리

가 무리 지어 꽃대를 들어 올리고 있다. 그 곁에 하늘말나리를 심었다. 잘 어울린다. 부엌일을 하면서도 눈길은 연방 하늘말나리 쪽으로 간다. 이따금 고추잠자리가 그 어린 꽃에 잠깐 머물기도 한다. 하늘말나리가 지고 나면 뒤를 이어 원추리가 피어날 것이다.

오대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생식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희귀한 들꽃도 구경하고, 꽃나무 모종도 구할 수 있다. 7, 8월이면 다리 건너에 산수국의 군락지가 있어 다른 데서는 보기 드문 산수국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오두막 묵정밭에 전나무,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복숭아나무, 모란과 함께 마가목을 여남은 그루 심었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매달린 빨간 열매도 일품이지만 산에서는 겨울철에 마가목을 달여 차로 마신다. 그런데 풀베는 일꾼이 무지해서 죄다 베어 버리고 단 한 그루만 겨우 남겨 두었다. 미리 알려두었는데도 그랬다.

뜰가에 회나무가 한 그루 무성하게 가지를 펼치고 있다. 10여 년 전 양재동 나무 시장에서 어린 묘목을 사다 심었다. 모진 추위를 어렵게 어렵게 견뎌 내더니 올해 처음으로 가지 끝에 꽃망울이 부풀어 올랐다. 회나무가 어린 시절, 나는 차를 마시고 나서 우려낸 잎을 회나무에 주면서 나하고 잘 지내자며 그를 쓰다듬으면서 달래 주었다.

이제 그 보답으로 꽃을 피우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식물은 들인 공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숙연해졌다. 사람인 우리는 살아 있는 나무와 꽃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여름 당신 곁에서는 어떤 꽃과 나무들이 당신의 가슴에 말을 걸고 있는가? 2008.

황색 의자黃色椅子

부처님! 세상에는 ‘벽감투’란 말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얻은 높은 벼슬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속에서는 오욕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을 여의었다는 당신의 제자들도 그 ‘높은 자리’에 앉아 버티기를 세속 사람들 못지않게 좋아하는 것을 요즈음 흔히 봅니다. 마치 그런 감투나 뒤집어쓰기 위해 이 문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한번 그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 분수도 돌아보지 않은 채 노랗게 탐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권을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마키아벨리즘의 무리처럼 말로라도 세상의 욕락을 떠나 출가 수도한다는 이들에게 무슨 ‘장長’이 그리도 많습니까? 그나마도 솔직하지 못한 것은, 그런 일이 전혀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행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개인의 수업을 온전히 희생하고 대중의 외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보살의 화현 같은 이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구조로 보아 본의는 아니나마 그 ‘긴 의자’에 걸터앉아야 하고 사원의 운영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왕 호삼보護三寶의 길에 들어섰으면 어디까지나 불제자 된 분수와 출세간적인 입장에서 사심 없이 공정하게 집무해야 할 것임에도 삼보의 정재를 함부로 탕진하고, 나아가서는 승려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채 사회적으로 불미스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그동안 드물지 않게 보아 오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이 좀 여유 있거나 수림이 우거진 절은 서로가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날뛰는 꼴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 저의는 얼마 안 가서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1964.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당신의 가정은 어떤가? 1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서 1996년 5월 22일 맑고 향기롭게 창립 기념으로 대구에서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위입니다.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한 인생의 삶도 가정을 떠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에 의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어머니와 아버지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아들 딸 또 곁가지들, 그 많은 관계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한 가족을 이루었겠어요. 우연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눈이 맞아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몇 생을 두고 쌓아서 이루어진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지구 인구가 50억이 넘는다는데(2023년 현재는 80억) 그 가운데서 짝을 이루고 사는 부부라면 25억 대 일이에요. 그 많은 인구 중 단 한 사람을 보았고 그래서 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비밀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심하게 그저 그런 사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몇 생을 두고 쌓은 인연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모든 인간적인 문제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원만하면 집안이 늘 빛을 발해요.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집안이 늘 어둡습니다. 또 그것이 가족들의 얼굴에 드러나요. 얼굴을 보면 그 집안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

에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고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저마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인생을 꽃피우는 그런 뜻에서 만난 겁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려요. 가화만사성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사사건건이 꼬입니다. 어떤 집은 집 안에 등나무를 심지 않는대요. 집안이 꼬인다고. 집안이 화목하면 꼬이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모여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요.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한 논밭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져 갈등이나 문제가 그 일을 통해 다 해소됐어요. 그런데 산업 사회에 와서 도시화되면서 각자 삶의 터전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도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면 쓸렁한 집만 남게 돼요. 마치 그것은 혼이 나가 버린 육신과 같은 겁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따스한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비행이나 탈선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쓸렁하면 마음 붙이고 있을 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돌면서 탈선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식구들이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바로 그런 장소가 가정이에요. 또 우리가 죽으면 통곡하는 그것이 가정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 가정이에요. 어느 때고 불쑥 드나드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이와 같은 보금자리가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가족 구성원들끼리 대화 단절에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든 부부간이든 대화다운 대화가 없어요. 묻는 말에나 대답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또 뭘 해 달라고 요구나 하지 진짜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 자기 내면세계를 드러내서 오순도순 의논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여권이라든가 관공서 서류 같은 것에 직업을 뭐라고 기록하죠? 주부라고 한다면서요. 모든 걸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직업란에 주부라고 적으려니까 슬그머니 화가 난대요. 그래서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싶죠. 아이들은 자랄 만큼 자라 품 안에서 사라지면 결국 두 내외가 남잖아요.

인도에서는 50살의 나이를 마나 플라스타라고 해요. 이 말은 산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라는 뜻이에요. 이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살이 되면 품에서 기르는 자식들이 다 떠나간 다음 덜렁 남게 된 빈 가슴으로 부모들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냐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니까? 어머니는 생명의 꿀이에요. 마치 대지와 같은 거예요. 이 대지에서 모든 생명이 탄생합니다. 어머니 처럼 위대한 창조주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하고 공모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지만 어머니가 아니면 생명이 잉태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어머니들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머니는 생명의 뿌리니까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천한 사람 1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뱃티의 제타 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바리때와 가사를 걸치고 밥을 빌러 사뱃티에 들어가셨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의 집에는 성화聖火가 켜지고 제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은 사뱃티의 거리에서 탁발托鉢하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까까중아, 거기 있거라. 영터리 사문아,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까까중아, 거기 있거라. 영터리 사문아,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는 신성한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가 그 신성한 불이 더럽혀질까 봐 스승에게 화를 낸 것이다.)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소? 또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소?”

“고타마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이놈 저놈 하면서 서슬이 퍼렇게 대들던 바라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고분고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전이나 주석서에는 그럴 만한 상황 설명이 전혀 없다. 부처님의 위력에 태도가 바뀌었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 자신의 지나친 언동에 대해 이내 후회를 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후회도 곧잘 하는 법이니까.)

“바라문이어, 그러면 주의 깊게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해 주겠소.”

“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116 “화를 잘 내고 원한을 쉽게 품으며, 성질이 못돼 남의 미덕을 덮어 버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7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한 번 태어나는 것이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라 함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태에서 나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알에서 나는 것이다. 알은 다시 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18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9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것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0 빛이 있어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느냐'고 발뺌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1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2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3 때로는 폭력을 쓰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놀아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4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5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계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6 상대가 이익이 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 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대광왕의 베풀

선재동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무염족왕이 얻은 환지^{幻智} 법문을 생각했다.
저 왕의 허깨비 같은^{如幻} 해탈을 생각하고,
허깨비 같은 법의 성품을 관찰하고,
허깨비 같은 소원을 발하고,
허깨비 같은 법을 깨끗이 하고,
허깨비 같은 삼세^{三世}에
갖가지 허깨비 같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인간의 성읍과 취락에 이르기도 하고,
또는 광야와 산골짜기의 험난한 곳을 지나면서도
피로한 줄 몰랐고 쉬지도 않았다.
어떤 성에 들어가 묘광성이 어디냐고 물으니,
사람들은 바로 여기라고 대답하면서
대광왕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했다.
선재동자는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의 선지식이 이 성안에 계시니
이제 친히 뵈고 보살의 행할 바를 들을 것이며,
보살의 뛰쳐나오는 문^{出要之門}을 들을 것이다.
또 보살의 증득한 법을 듣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듣고,
불가사의한 자재^{自在}를 듣고,
불가사의한 평등을 듣고, 불가사의한 용맹을 듣고,

불가사의한 경계가 광대 청정함을 들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묘광성에 들어가
성안을 둘러보았다.
금, 은, 유리琉璃, 파리玻璃, 진주, 자거碑磔,
마노瑪瑙의 칠보로 성을 만들고
칠보의 해자垓字가 일곱 겹으로 둘러었는데,
거기 팔공덕수八功德水가 가득 차 있었다.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렸으며,
우발라화優鉢羅華, 파두마화波頭摩華,
구물두화拘物頭華, 분다리화芬陀利華가
그 위에 덮였고,
보다라수가 일곱 겹으로 줄지어 서 있었다.
이 성안에 정법장正法藏이라는 누각이 있으니,
온갖 보배로 장식되어 있었다.
광명이 찬란하기가 비길 데 없어
보는 사람마다 싫은 줄을 몰랐다.
대광왕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이와 같은 보물과
육진 경계六塵境界에는
물론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다만 구경究竟의 법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선지식 뵈기만을 원하면서
점점 나아가다,
거처하는 누각 가까이에 있는
네거리에서 여의주 보배로 만든
연화장 광대장엄 사자좌에 앉아 있는
대광왕을 보았다.
왕의 거룩한 모습은 순금으로 이루어진 산처럼
그 빛이 눈부시고,
맑은 허공에 뜬 해처럼 광채가 찬란하며,

보름달처럼 보는 이마다 시원하게 했다.
왕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베풀어 주고 있었다.
성읍 취락의 네거리에
온갖 생활 필수품을 쌓아 두고
중생에게 보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중생을 두루 거두어 주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뛰놀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이며,
중생이 모든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온갖 지혜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이 적개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악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의 나쁜 소견을 뽑아내기 위해서이며,
중생의 모든 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선재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의 발에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
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
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태풍 연가

태풍이 지나간
바다의 빛깔은
어찌 이리
푸르고 투명한지!

태풍이 지나간
숲의 모양은
어찌 이리
환하고 깨끗한지!

한바탕 싸움 끝에
울고 나서
활짝 개인 마음의 하늘

그대와 나의 사랑은
어찌 이리 순결한지요!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맑고 향기롭게 앱(APP) 사용해 보세요.

'구글 Play 스토어'와 '애플 App Store'를 통해 '맑고 향기롭게'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과 법정 스님 저서와 말씀, 영상 자료를 모바일 웹뿐 아니라 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활동 참여 신청 및 문의, 1:1문의, 나의 후원 금액 확인 및 변경, 일시 후원의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 5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글 나눔 사업
- 상담, 심리 치료,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 지대 아동, 청소년, 홀로 어르신 등 지원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보호 시설 종료(자립 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등록기관)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아나바다 공유 사업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3년기도

- 일시 : 7월 1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백중 천도재 49재 안내

- 49재 일정

| | | |
|----|-----------|----------------------|
| 초재 | 7월 19일(수) | 선망 조상, 부모 형제를 위한 천도재 |
| 2재 | 7월 26일(수) | 낙태 영가를 위한 천도재 |
| 3재 | 8월 2일(수) | 호국 영령을 위한 천도재 |
| 4재 | 8월 9일(수) | 선망 조상, 부모 형제를 위한 천도재 |
| 5재 | 8월 16일(수) | 반려동물 조축 |
| 6재 | 8월 23일(수) | 선망 조상, 부모 형제를 위한 천도재 |
| 막재 | 8월 30일(수) | 선망 조상, 부모 형제를 위한 천도재 |

- 일시 및 장소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동참금 : 10만 원(가족 축원)
- 기도 안내
 - 2재(낙태 영가를 위한 천도재)에는 어린이나 유아들이 좋아하는 과자, 유제품을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 5재(반려동물 조축)에는 특별히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위한 조축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위한 영단을 법당 외부에 간소하게 만들어 조축할 수 있도록 하니, 좋아하던 간식 등을 동물 영단에 올리면 됩니다.
-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 동참자는 주지 스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동참금 10만 원 이상 자율 보시)

●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 기도명/법회 | 날짜 | 시간 | 장소 |
|--------|--------|-------------------------------|-----|
| 다라니기도 | 7월 1일 | 오후 6시 ~ 8시 30분 | 극락전 |
| 보름기도 | 7월 2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지장재일 | 7월 5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관음재일 | 7월 11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초하루기도 | 7월 18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백중 초재 | 7월 19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백중 2재 | 7월 26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극락전기도 | 매일 |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 극락전 |
| 지장전기도 | 매일 |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